

김현섭의 『한국 현대건축 산책: 2000년대 우리 도시의 소소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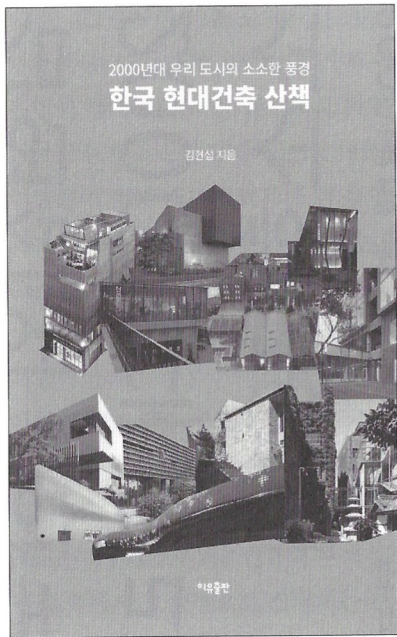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 문물렉스

서평

글 | 현명석

그렇다면 이런 도착적인 현실에 대해 다소 히스테리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으리라.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의 기계적 절충주의로 유연한 생태적 질서를 꿈꾸자고 외친들, 나날이 매끄러운 연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가는 빅 테크들의 기계 지능 앞에서 왜소해져가는 인간들이 어찌 자본주의보다 더 유연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매끄러운 기계주의를 생태주의와 동일시하는 환상이야말로 자본세(資本世, Capitalocene)를 사는 인류의 새로운 아편이 아닌가? 우리에게 진정 생태주의가 요구된다면 오히려 흠 파인 공간이 억압적이고 매끄러운 공간이 해방적이라는 자본주의 생태-기계의 환상을 횡단하며 그와 마찰하는 생태-인간적 기표들을 생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제임스 조이스의 '증환'은 분열증자의 유연한 기계주의 같은 게 아니라 분열적으로 와해될 법한 생의 구조를 새로운 창조적 기표로 지탱해낸 인간 정신의 누빔점(quilting point)이지 않았던가? 인간의 주체성은 매끄럽거나 유연한 기계적 질서 속에서 모순적으로 실재하는 사회적 삶의 부정성이라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까?³⁹

39 기계화하는 도시 물류를 자연적인 액체의 '흐름'에 비유하는 재현과 관리 기술이 어떻게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과 착취의 과정을 대중의 인식 밖으로 밀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찰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적 만남을 위한 요건인지를 기술한 제시 레커발리에의 명문—「마찰과 주문 이행 사이」, 『공유도시: 확장된 도시』(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제프리 S. 앤더슨 엮음, 조순익·길예경·정주영 옮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워크룸프레스, 2017), 141~52쪽—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김현섭 지음, 한국 현대건축 산책: 2000년대 우리 도시의 소소한 풍경, 이우출판, 2025.

『한국 현대건축 산책』은 동시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건축 역사 비평가 김현섭의 건축 평론집이다. 책은 김현섭이 한국건축가협회 평론분과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협회 기관지 《건축가》에 기고한 열두 편의 평론을 중심으로 짜였다. 책이 다루는 건축물은 대개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지어진 것인데, 유일한 예외는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는 이른바 공간콤플렉스다. 공간콤플렉스는 공간사육을 이루는, 각각 다른 시기에 지어진 세 건축물, 곧 김수근의 벽돌사육(1971-77), 장세양의 유리사육(1996-97), 이상림의 한옥(2002)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책을 이루는 건 비단 열두 편의 평론만이 아니다. 각 평론 앞뒤로 텍스트가 덧붙여 한 챕터를 이루는데, 저자 김현섭이 지금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쓴 머리글이 앞에, 그리고 평론 대상인 건축물의 저자라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쓴 '건축가의 말'이 뒤에 덧붙는다. 게다가 나 또한 건축 보고 읽기를 중요한 업으로 삼는 건축 독자/필자이다 보니, 텍스트 너머 건축물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때로는 저자와 비슷한 처지에서, 때로는 그와 다른 처지에서 건축물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까닭에, 책 구성이나 읽기가 그리 평면적이지만은 않다. 건축물, 건축물에 관한 김현섭의 글, 건축물에 관한 건축가의 글, 그리고 현시점 김현섭의 글. 게다가 이 모든 것의 집적체인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나. 이런 다층의 텍스트를 통해 김현섭의 책은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내러티브를 어렵פות이 산만하게 그려내는데, 김현섭의 반듯한 글쓰기 스타일을 충체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산만한(discursive) 내러티브로 이끄는 건 바로 이런 책의 구성이다.

이 겹겹의 구성에서 특히 흥미로운 선택은 《건축가》에 실렸던 본래 글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지금 시점에서 김현섭이 새롭게 다시 쓴 짧은 머리글을 덧붙인 점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보고 읽는 다양한 저자의 다른 시각을, 곧 시차를 드러내는 여러 편의 짧은 글을 모으겠다는 게 본래 협회 평론분과위원회와 《건축가》의 기획 취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래 글은 꽤 짧은 편이다. 짧은 분량 탓에 담지 못하고 유보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법하다. 게다가 책을 펴낸 시점은 본래 글을 쓴 지 적어도 10년 넘게 지나고 나서다. 저자로선 본래 글을 썼을 때와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현섭은 (공간사육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수정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본래 글을 고치거나 늘리는 대신 새로운 글을 덧붙여 보완하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챕터를 이루는 텍스트들 사이 시공간적 틈새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챕터(가 다루는 건축물)들 사이 틈새는 더 확대된다. 당연하게도, 책이 들려주는 한국 현대건축의 내러티브는 곳곳이 구멍 난 성긴 구축체다. 예컨대 우리는 책을 통해 뉴욕 현대미술관에 각각 작업이 소장된 중견 건축가 김영준과 문훈의 확연히 다른 경향을 동일한 라이트박스 위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 “김영준의 건축이 엄격한 논리, 이성, 다이어그램에 근거하는 반면, 문훈의 건축은 직관적 감각, 놀이, 프리핸드 스케치와 함께하기 때문”(20쪽)이다. 혹은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의 폐해를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극복하겠다”(32쪽) 4.3그룹 방철린의 태도와 달라진 도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바로 아랫세대 건축가 김영준의 태도를 비로소 역사화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김현섭의 책은 특정 건축 사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건축 역사 비평가 김현섭의 역사이기도 하며, 더 중요하게는,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미완의 역사다.

김현섭이 쓰는 미완의 역사 내러티브를 여는 건축물은 문훈의 상상사진관이다. 군부 독재 시기 억압과 정치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며 폭발한 소비문화와 이식된 포스트모던의 낯선 감성,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전례 없었던 개인주의의 반향 가운데 출현한 상상사진관이 이 내러티브의 매혹하는 발단이라면, 관습적 방법론, 그리고 전통을 향한 참조와 변주가 높은 완성도로 능수능란하게 구현된 방철린의 탄탄스토리하우스와 이성관의 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은 이 내러티브의 탁월한 프리퀀이다. 최삼영의 소소갤러리를 다루는 평론은 나무가 표상하는 아시아적 가치와 (미스 건축의) 철과 유리가 표상하는 서구적 가치의 변증 구도 속에서 작동하는데, 질료의 변증은 구축 체계와 디테일의 변증을 거쳐 자연과 인공을 양쪽에 놓는 변증 구도로 확장한다. 그 바탕에는 지역 정체성과 현대 보편성 사이를 진동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구도가 깔려 있는데, 조성룡의 지엔아트스페이스 평론에서 김현섭의 비판적 지역주의 차용은 더 노골적이다. “한때는 전위자의 위치에 섰으나”(61쪽) 지금은 “풍경”, “군집성”, “관계성” 등에 천착하며 “비판적 후위”에 가까워진 조성룡 입기를 통해 김현섭은 2000년대 초 한국 현대건축의 새로운 ‘전위’가 된 장윤규나 조민석의 세대와 4.3그룹 세대 사이에 역사의 겹을 밀어 넣는다.

몇몇 챕터에서 김현섭은 건축 자체 속성이나 분석 너머 더 넓은 맥락에서 나타난 2000년대 사회 문화 현상과 관련 의제를 다루기도 한다.

예컨대 황순우의 인천아트플랫폼은 두 가지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는데, 하나는 “현대 도시의 페러다임이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상황”(71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가 역할의 범위에 관한 것”(73쪽)이다. 일본 옛 조계지를 자세히 살펴 보존과 철거 대상을 선별하고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주도한 기획자이자 건축가 황순우의 지향성과 프로젝트의 수행성(performance) 사이 역동적 관계는 비단 인천아트플랫폼만의 주제가 아니며, 건축 직업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조남호의 살구나무집이 제기하는 중요한 의제는 한국 사회가 욕망하는 ‘집’의 상(想)과 그 가능성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으로 회귀하길 원했던 많은 이들의 당시 열망을 잘 반영한”(109쪽) 살구나무집, 그리고 비슷한 시기 비슷한 열망에 힘입어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땅콩주택 현상은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 내러티브의 중요한 백스토리다. 덧붙이자면, 이 챕터를 마무리하는 ‘건축가의 말’은 특히 인상적인데, 다른 「건축가의 말」이 대체로 무난한 프로젝트 설명에 그쳤다면, “보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119쪽) 가운데 보편의 주택을 제안하는 일이 오히려 실험적일 수 있다는 건축가 조남호의 ‘선언’은 한국 현대건축 담론에 두께를 더하는 소중한 말이다.

김영준의 학현사, 시스템랩의 폴스미스플래그십스토어, 익스튀아키텍츠의 전곡선사박물관, 와이즈건축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루는 챕터들은 과거와는 다른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건축 지형의 또렷한 변화를 표상한다. 이들 건축가 가운데 김영준은 확연히 다른 세대에 속하지만, 그의 건축적 태도는 못지않게 급진적이다. 김현섭이 잘 지적하듯이, 김영준은 4.3그룹 선배 세대와는 거의 정반대에 선 채로, 땅에 새겨진 지문(landscript)이 아닌 현대 도시의 현실을 직시하며, “도시 가로의 우발성을 꿈꾸는”(88쪽) 다이어그램을 도구 삼아 내향적이고 복잡한 미로를 구축한다. 김현섭은 또한 시스템랩을 다루며 형태와 그 형태를 낳는 거푸집 사이 배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주목하는데, 이 역설을 경유해 그는 폴스미스플래그십스토어의 낯설고 조소적인 비정형 형태와 시스템 발명가로서 자기 자아를 설정하는 시스템랩 사이 역설을 포착한다. 이는 곧 아방가르드의 역설이기도 한데, 시스템랩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실현된 작품이 이미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모두를 전제로 하며, 표층 아래 심층의 사회체계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142쪽)이다. 2006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구현된 전곡선사박물관과 한 해 뒤

지명공모를 통해 구현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이른바 '작가'로 분류되는 외국 건축가의 국제공모 프로젝트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맥락과 형상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대결하는 양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들 프로젝트에서 그 변증의 구도를 작동시키는 일은 “건축과 역사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생산할 수 있는”(124쪽) 방식이다. 와이즈건축의 출현과 그들의 초기작 전경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루는 챕터에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으며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 세대의 통과외례와 전형적 생존 전략을 목격할 수 있다. 소규모 전시나 설치 작업 등으로 처음 이름을 알리고, 공격적으로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는 탓에 소규모 조직으로, 때로는 협업을 통해 자기 영토를 한시적으로 확보하는 “초식” 건축가의 전략 말이다.

공간콤플렉스를 다루는 마지막 챕터는 단연 이 책의 백미이며, 김현섭이 어떤 학자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질적인 세 덩어리, 곧 김수근 건축의 정수이자 한국 현대건축의 마스터피스인 벽돌사옥, 모더니즘 건축의 투명성을 체화한 장세양의 유리사옥, 그리고 직서적 전통 인용을 통해 “한옥 부흥을 예견”한 이상림의 한옥이 겹겹이 더해져 이루는 이 비균질 콤플렉스는 한국 현대건축의 축소판이며, 보기에 따라선 책 자체의 구성을 은유하기도 한다. “세 덩어리의 시간 켜가 응집된 공간 콤플렉스야말로 각각의 시대적 의미와 함께 한국 현대건축의 핵심 줄거리를 펼쳐보인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163쪽)이다. 김현섭은 ‘공인된’ 마스터피스임에도 그동안 종합적인 서술이나 평가가 부재했던 김수근의 공간사옥과 그것을 둘러싸는 사물들에 관한 산재하는 정보와 담론을 한데 모아 꼼꼼히 정리하는 한편, 충실한 분석과 묘사를 통해 견고한 역사 비평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공간콤플렉스는 그것이 지닌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대접을 비로소 이 글을 통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길 바란다. 김현섭의 글이 공간콤플렉스를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다루는 이후 “작업을 재촉하는 박차”(193쪽)가 되길 바란다.

이 글은 서평, 곧 책에 관한 평론이다. 그런데 그 책이 평론집이다 보니, 결국 이 글은 평론에 관한 평론인 셈이다. 일종의 메타 평론이란 말인데, 평론이란 장르에 관한 자기 성찰을 내가 이 글에 충분히 담진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한국 현대건축에서 평론이 차지하는 자리를 김현섭의 평론집을 경유해 점검하자면, 그가 짐짓 무심한 척 엮은 열두 챕터로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계보를 그리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김현섭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 구조적 문제를 조건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이다. 책을 읽고 난 뒤 그려지는 200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이미지는 느슨하고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실체가 없지 않은데, 이 당장 잡히지 않는 실체를 역사와 비평의 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김현섭이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한 가지 지적하자면, 역사가 김현섭에 비해 비평가 김현섭의 존재감이 책에서 두드러지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아쉬움은 고스란히, 아니 더 높은 강도로 나 자신을 향하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지금 이곳에서 있었던, 그리고 있어야 할 건축 비평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메타 비평이 필요하다. 김현섭의 평론집이 이런 성찰과 고민의 촉발제가 되길 바란다.